

옥수수시세 약세인 반면, 기타곡물시세는 안정세 유지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 미산옥수수 약세로 반전

한동안 회복세를 보이던 미산 옥수수시세가 다시 수출수요의 감소와 옥수수수확호조 등으로 인해 약세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근월도인 12월 선적분은 현재 C&F 톤당 85불수준으로 약 5불 가까이 하락했고, 원월도인 3~4월 선적분도 85~90불 수준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향후 미산 옥수수시세는 내년도 미산 옥수수에 대한 식부면적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안정적인 시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도 미국의 옥수수 수출전망이 소련의 수입감소로 불안정해짐에 따라 그동안 가격회복을 보여오던 미산 옥수수시세가 다시 약세로 반전되고 있다.

USDA가 12월 11일 발표한 미농무성작황보고서(CROP REPORT)에 따르면 금년도 미국의 옥수수 수출예상량이 크게 하향·조정되었다. 공급측면에서는 지난달 추정치와 일치하여 미산 옥수수의 총공급물량이 3억 1,152만톤으로 추정되었으나, 수요측면에서만 하향조정이 이루어졌다. 즉 지난달 미농무성이 추정한 86/87년도 수출예상량은 3,302만톤이었으나 금번 수정치는 2,858만톤으로 9.3% 낮게 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수요와 수출수요로 이루어지는 총수요가 2.6% 감소한 1억 6,447만톤으로 나타났으며,

기말재고는 1억 4,709만톤으로 3.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미산 옥수수의 수출예상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 것은 최근 소련의 조곡생산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사료용 조곡수입이 줄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86/87년도 소련의 조곡생산예상량은 1억 800만톤으로 지난해의 1억톤에 비해 8% 증가한 셈이다. 일부 곡물전문가들의 이같은 수출감소예상은 최종적으로 2,540만톤 규모로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소련의 미산 옥수수 구매물량이 급격히 감소한 다하더라도 일본과 한국의 수입량은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하고 있다.

아름든 이와 같이 소련에 대한 미국 옥수수의 수출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면서 미국의 수출예상량은 감소하고 있고 옥수수시세 또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 태국산 옥수수시세 강세

미산 옥수수시세가 전반적으로 약세기조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반해 중공 및 태국산 옥수수시세는 다소 반등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여러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태국산 옥수수는 금년도 생산량이 410만톤으로 지난해의 520만톤에 비해

1. 옥수수 시세동향

단위 : US\$/MT



(12)월	1	2	3	4	5	8	9	10	11	12	15	16	17	18	19	22	23
PNW	90.52	89.74	89.24	86.29	86.59	87.37	86.88	87.96	86.68	85.21	84.72	83.72	81.85	81.75	80.96	85.88	85.29
Gulf	94.52	93.34	92.85	88.75	89.01	89.80	89.31	86.81	87.54	85.67	85.17	84.57	83.48	83.39	82.99	87.91	87.32

22%가량 크게 감소하면서 강세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공산 옥수수는 금년 생산량이 7,000만톤으로 지난해의 6,380만톤에 비해 9.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내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수입을 늘리고 있고 동북부지역에서는 여전히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태국측의 마켓뉴스에 따르면 최단기간동안 옥수수 판매실적중 중공의 수입량이 최고수준을 기록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같은 중공내의 수급 불균형과 지난해의 흉작영향 등으로 금년도의 수출여력은 감소하고 있고, 시세 또한 비교적 강세현상을 유지해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동남아수출을 크게 늘려왔던 아르헨티나가 87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수출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금년도 옥수수생산량은 1,200만톤으로 1,210만톤의 지난해 수준과 거의 대등소이하나 소련의 조곡수급상황이 급격히 호전됨에 따라 그동안 소련에 수출해오던 일부물량을 동남아에 수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미산 옥수수보다 낮은 시세에 원월도 판매를 시도하려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같은 옥수수수출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해 최근 교섭중에 있는 태국과 일본과의 옥수수구매계

2. 대두 시세동향

단위 : US\$/MT



(12)월	1	2	3	4	5	8	9	10	11	12	15	16	17	18	19	22	23
C&F 가격	210.29	209.65	209.56	208.27	206.52	205.97	204.32	204.04	202.21	202.76	203.13	202.03	201.85	201.76	202.31	203.23	202.49

약의 타결이 난항을 보이고 있다. 태국측에서는 현재 87년도 1월~2월 선적기준으로 C&F 톤당 102불수준을 제시하고 있고, 2월~3월은 105불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측에서는 이같은 제시가격에서 20불정도를 더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태국측에서는 1불이상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같이 교섭에 난항을 보이고 있는 주요인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금년도 신곡수확량이 380만톤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최근 태국내 수요량도 육계사료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여 일부에서는 연간 150~170만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공으로의 수출이 활발하여 11~12월 선적기준으로 30만톤 가까이 수출계약도 이루어져 내년도 수출여력이 이월물량을 감안하여 250만톤 수준이고, 이중 200만톤 가량이 타수출국들과 계약이 이루어

어져, 나머지 수출잔량은 50만톤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때문에 태국과 일본과의 옥수수 구매계약은 무산될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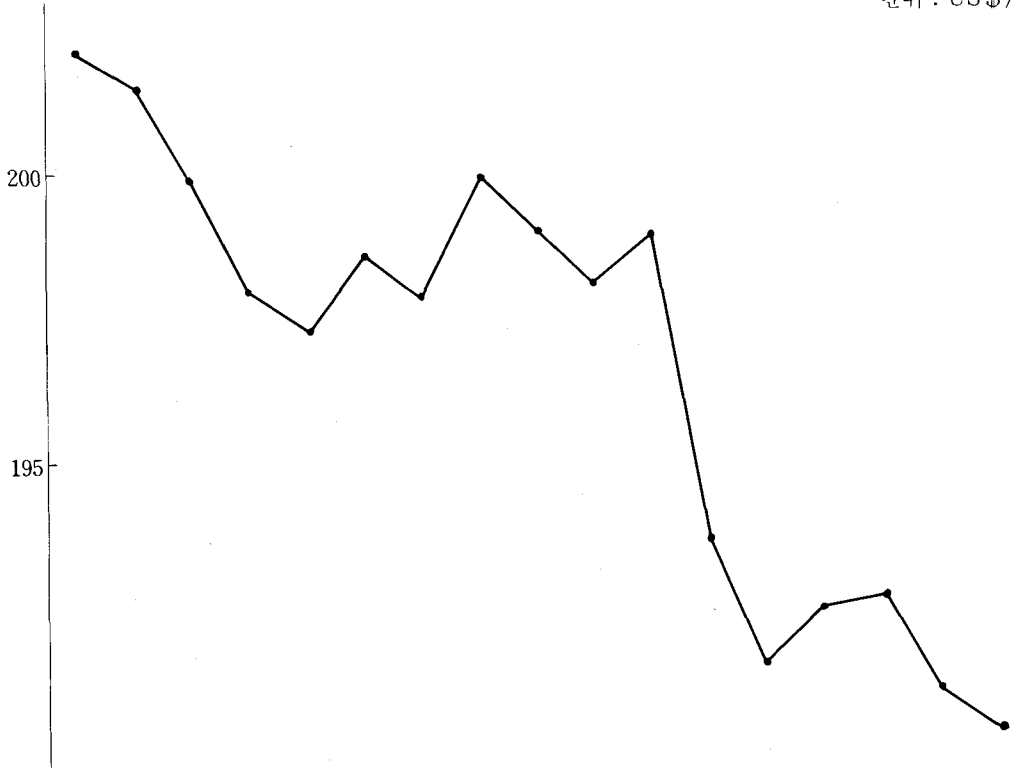
■ 기타곡물 안정세 유지전망

지난해 대두와 대두박간의 불균형을 보여왔던 국제시세가 금년에는 다소 조정될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미산 대두시세는 C&F 톤당 203불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대두박시세는 195불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9월까지만하더라도 대두유수요감소로 인한 기름체화현상으로 대두보다 오히려 대두가공부산물인 대두박시세가 높은 불균형 현상을 보여왔었다.

그러나 최근 대두수급상황이 크게 호전되고, 그동안 주로 대두박에만 의존하던 수입국들이 채종박, 면실박 등으로 수입대체를 행함에 따라 대

3. 대두박 시세동향

단위 : US\$/MT



(12)월	1	2	3	4	5	8	9	10	11	12	15	16	17	18	19	22	23
C&F 가격	202.01	201.57	199.70	197.93	197.27	198.60	197.82	199.92	198.93	198.15	198.93	193.63	191.42	192.41	192.63	190.98	190.32

두박시세가 약세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금년도 미국의 대두생산량은 5,467만톤으로 약 4.3% 하락했으나, 수요감소현상으로 인해 기말 재고는 지난해에 비해 14.7%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대두박은 금년도 기초재고량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출수요 역시 감소할 전망이어서 기말재고는 지난해에 비해 43.5%나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기타곡물중 소맥은 앞으로 옥수수 시세 추이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금년도 소맥수출국인 캐나다의 사료용소맥수출여력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반면 수수시세는 그동안 옥수수와 소맥시세의 하락으로 인해 경쟁력을 크게 상실한채 미산 옥수수시세보다 높은 수준에서 시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미산 수수의 수확이 진전됨에 따라 다소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87년도 주요곡물시세는 전반적인 약세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나 86년도 가격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소곡의 가격회복현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운명을 믿는것은 승리를 포기하는 것이다.